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2017년 4월 5일 수요일 (음 3월 9일) 제178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장미대선' 대진표 확정… 5자구도+α

文 견제 합종연횡 성사되나?

초유의 탄핵사태로 인해 내달 치러질 '장미대선'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원내 5개 정당 모두가 대선후보를 냈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도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일단은 '5+α'의 구도가 형성됐다.

하지만 다자구도로 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세론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본선까지 이 같은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문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물밑 합종연횡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우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간 연대로 '범 보수연합'이 이뤄질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이럴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과 함께 4자 구도를 형성하게 되면서 갈 길 잃은 30~40%에 이르는 보수우파의 표가 결집할 수 있다는 셈법이다.

그렇지만 뿌리가 같은 보수라 할지라도 수구와 개혁으로 대별되는 두 후보의 성향이 달라 서로 각을 세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이미 상당한 지지층이 중도보수로 이탈한 상황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회심의 히든카드는 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냉정한 평가다.

또 다른 4자구도로는 여야로 출

'범 보수연합' 가능성 '물건너?'

홍준표 · 유승민 설전으로 사실상 연대 불가능 관측도

안철수, '자강론' 내세워 인위적 단일화에 '부정적'

김종인의 역할 '주목'

'비문연대' 매개로 중재자로 가세한다면 문재인에 '최악' 될 수도

신성분은 다르지만 성향이 비슷한 안철수, 유승민 후보 간의 '중도보수 연대'도 이뤄 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지지층인 중도와 일부 보수층을 기반으로 비문(非文)성향의 표까지 흡수한다면 해볼 만 한 승부를 펼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만일 성사된다면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안 후보로 힘이 쏠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문 대세론을 꺾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출마를 결심한 김종인 전 대표가 '조커' 역할을 맡아 모종의 역할을 한다면 분위기가 급반전 될 수 있다.

선거 중반이나 막판에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힘을 합쳐 '범 보수.중도연합'을 결성해 문 대세론에 맞서는 3자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확률은 낮아 보이지만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다 '비문연대'를 매개로 김종인 전 대표까지 중재자로 가세한다면 문 후보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지난 2012대선 때와 같이 초 접전 박빙승부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듯 '경우의 수'는 다양하지만 성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범 보수연합'의 이해 당사자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인신공격도 마다않는 거친 설전을 쏟아내고 있어 연대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도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도 '자강론'을 내세우며 인위적 단일화에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종인 전 대표를 핵심으로 한 제3지대 통합정부 추진세력의 '문재인 대 비문'의 양자구도 추진도 지금으로서는 동력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33일이란 시간은 결코 짧지만은 않다.

판도를 뒤흔들 변화무쌍한 조화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조합의 카드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국민의 선택이 궁금하다. /안재용 기자

청명, 고구마 순도 청명하게 청명인 4일 정읍시의 고구마 농장에서 한 농민이 고구마 순에 물을 뿌리고 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선조위 인정 못해"

선조위 "육상 거치 늦어질 수 있어 반잠수식 거치상태서 수습 시작 가능"

유가족들 "합의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줘… 배에 못들어가" 강력 항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들이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사전 합의 없이 수습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가족들이 강한 불만을 표했다.

미수습자 조은화양 어머니 이금희씨는 4일 오후 5시35분께 전남 목포 목포신항 취재지원센터를 찾아 "해수부와 선조위 인정 못한다. 배 위에 한 발도 못 올라간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은화 엄마는 "지금 뭐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세월호가 넘어질 때 전원구조라고 (뉴스에)나와서 은화 옷 갈아입히러 내려왔던 엄마다. 근데 왜 아이 찾는 걸 우리에게 합의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고 기자들에게 먼저 얘기하냐"고 항의했다.

이어 "내 딸 찾는데 내가 말할 권리가 없는 나라다. 이제 무슨 세월호 참사를 얘기하는 거냐. 난 분명 (선조위와 해수부에게서)연락받은 적이 없다. 먼저 얘기해줄 거라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이렇게 무시하는 선조위와 해수부 인정 못한다"고 했다.

은화 엄마는 "그 배에 한 발도 못 들어간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지키겠다. 그만 개 취급하라"며 "내가 들어가서 손으로 다 찾을 것이다"라고 말한 뒤 취재지원센터를 떠났다.

이날 취재지원본부에서 선조위는 세월호 육상 거치가 늦어질 수 있으며, 반잠수식 선박 거치 상태에서 미수습자 수습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었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자리를 떠난 뒤 김창준 선조위원장은 조만간 직접 만나 오해를 풀겠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유가족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세월호 인양 과정을 매일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브리핑을 한 것"이라면서 "중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철승 선조위원은 "매일 은화 엄마와 연락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매일 정확하게 진행 상황을 유가족에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도 해수부하고 회의를 할 때 유가족과 함께 하자고 했는데 유가족이 선조위를 믿고 안 들어온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현장에 갔는데 배 중량이 갑자기 늘어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데이터도 바뀌는 상황에서 상하이샐비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면서 "세월호 육상 거치가 어려워지면 그 다음 방법이 무엇인지 빨리 강구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도내 시민단체 "콜센터 여고생 죽음, 산재 인정하라"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월 통신사 콜센터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여고생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앞에서 "홍수연양에 대한 산업재해를 승인하고,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실적과 돈벌이만 앞세워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경영이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숨진 홍양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의 계약 중단을 요구하는 고객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 '해지 방어 부서'에서 근무했다"며 "홍양은 전화상으로 고객의 욕설을 받아내는 감정노동에 시달렸다"고 꼬집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은 조속히 홍양의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정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22일 이동통신회사 콜센터에서 4개월 간 근무했던 홍양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전주의 한 저수지에 투신해 숨졌다.

이후 유족과 시민·사회단체의 조사를 통해 홍양의 죽음이 콜센터의 혹독한 업무 지시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민근 기자

매일 INDEX

3면 - 검찰, 6일 우병우 소환조사
6면 - 체감물가, 5년 만에 최고치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아름다운 선거
전국선거관리위원회